

“소리극 ‘갑오년 만석씨’ 집에서 즐겨요”

정읍시·시립국악단 기획·제작 ‘동학농민혁명 127주년 기념 특별공연’ 13일 전주MBC 방영

동학농민혁명 127주년을 기리는 특별공연 ‘갑오년 만석씨’가 오는 13일 오후 1시 15분부터 90분간 전주MBC에서 방영된다. 상반기 최고 기대작으로 손꼽혀온 소리극 ‘갑오년 만석씨’(작가 사성구, 연출 주호종)는 정읍시와 시립국악단이 공동 기획·제작했다. 이 작품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근대 민족운동의 성지인 정읍을 배경으로 흥미진진한 대본과 화려한 연출, 맛깔나는 음악 3박자가 잘 어우러진 전통 음악극이다.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에 휘말린 백성 만석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가슴 뜨겁게 불어치는 웃음과 감동의 대서사시이다. 특히, 만석의 달래를 향한 영웅 발랄한 순애보와 녹두장군 전봉준과의 만남을 통해 가슴 벅찬 사랑과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좋은 공연을 감상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학농민혁명 127주년을 기리는 특별공연 ‘갑오년 만석씨’가 오는 13일 오후 1시 15분부터 90분간 전주MBC에서 방영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디지털 활용·접목 관광혁신 아이디어 발굴

전북문화관광재단, 공모전 시상식 개최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10일 2021 전라북도 디지털 활용 관광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디지털을 활용·접목한 다양한 관광혁신 아이디어 발굴과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함이다. 공모전에는 총 32개(팀)의 아이디어가 접수돼 디지털 활용 기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았다. 이후 전문가 평가를 거쳐 9개(팀)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시상은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6명 등이다. 최우수상에는 ‘디지털을 활용한 무장애 전북 관광 환경 조성’이 선정됐다. 군중 관리(Crowd Management) 솔루션과 GPS 기반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을 결합해 장애인 및 노약자들을 안전한 관광·여행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우수상에는 ‘도보길 로드뷰 관광 영상 정보 제공 플랫폼’과 ‘오픈 API 기반 무장애 여행 카테고리 신설’ 2개 아이디어를 선정, 장려상은 인공지능 멀티 스마트 드론 로드 가이드, ‘한식의 세계화 한식 도서관 앱’ 등 6개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정승민 팀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재단 주요사업에 접목해 디지털 산업 혁신을 선도



전북문화관광재단은 10일 2021 전라북도 디지털 활용 관광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하겠다”고 말했다. 230-7471)에 문의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단 관광진흥팀(063-

/장은성 기자

‘한국의 비르투오소 김규연 피아노 리사이틀’

19일 전주한벽문화관 한벽공연장서



피아니스트 김규연의 공연이 오는 19일 오후 5시 전주한벽문화관 한벽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한국의 비르투오소 김규연 피아노 리사이틀’로, 부제목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consolation(위로, 위로)’으로 정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김규연만의 대담한 기교와 서정적인 예술성을 동시에 확

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 그 시작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슈베르트 대표곡으로 공연의 막을 연다. 이어 모차르트 특유의 풍부한 사운드가 느껴지는 피아노 소나타 4번 내림마장조를 선보인다. 다음으로 곡의 유명세에 비해 흔히 연주되지 않는 리스트의 작품들이 이어진다. 특히 마지막 곡은 그녀만의 섬세한 터치로 관객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할 예정이다. 또한 클래식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피아니스트 김규연이 직접 곡 해설을 곁들였다. 한편 공연은 전석 5만원이며, 인터파크에서 예매 가능하다. 공연에 관한 문의는 전주문화재단 콘텐츠사업팀(063-280-7046)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관광지 특색 살린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광한루·관광단지 일원에 총 528개소



남원시가 대한민국의 대표 명승지인 광한루원과 남원 관광단지 일원에 춘향의 사랑과 추억을 반영한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했다. 이 번호판은 기존의 납색 오각형 또는 사각형의 표준형 건물번호판의 단조로움을 벗어난 시인성이 높고 주변 환경과 특성에 걸맞은 디자인으로 제작·설치 가능했으며, 남원시는 지난해까지 고생길, 노봉길, 만행산길 등에 마을의 특색을 살린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총 3,236개소에 설치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에 올해는 지난 2월부터 한달간 광한루원과 남원관광단지 일원의 시민과 주소 사용자를 상대로 자율형 건물번호판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으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관광지의 특색과 이야기를 살린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총 528개소에 설치했다. 남원시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로 도로명 주소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기존 표준형 건물번호판 대비 가시성을 향상시키고 도

시 미관을 개선, 남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상대로 사랑의 도시 남원의 효과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황중연 민원과장은 “남원의 대표 관광지인 광한루원과 남원 관광단지 일원에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로 문화 관광도시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역특색과 이야기를 담은 자율형 건물번호판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시평생학습관, 인문매거진 ‘인문전주’ 창간호 발간

전주시평생학습관은 다양한 인문콘텐츠를 담은 매거진인 ‘인문전주’ 창간호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인문학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간된 ‘인문전주’는 60페이지 분량의 잡지 형태로 꾸며졌으며, 인문학 저자 관련 내용과 인문예시 등으로 구성됐다. 특별기획으로는 ‘장길산’을 쓴 황석영 작가 인터뷰가 수록됐으며, ▲사물인문학, ‘견딜 수 없는 사물들’ ▲여행인문학, ‘친구가 되었어요’ ▲영화인문학, ‘태어나길 잘했어’ 영화가 던진 창작자의 뒷 등 다양한 콘텐츠가 포함됐

다. ‘인문전주’는 동 주민센터와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등에 배부될 예정이다. ‘인문전주’의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e.jonju.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주시 교육청소년과 관계자는 “시는 365일 삶과 향기가 넘치는 인문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인문전주’를 통해 균형 잡힌 인문학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